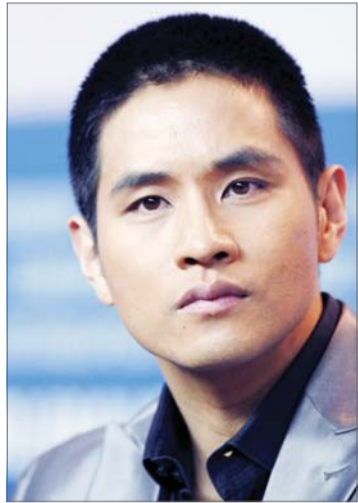


# ‘유승준 반감’ 여전 입국금지 청원 쇄도

청와대 국민청원 16만여 명 돌파  
‘선거권 제외’ 내국인과 권리 같은  
재외동포 비자 신청에 여문 ‘부글’



유승준. /뉴스

대법원이 지난 11일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뒤 유승준의 입국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유승준 입국금지를 다시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4일 오후 2시 기준 16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 ◆두 차례 재판과 두 차례 패소

병역 기피 논란과 입국 금지 조치 이후 유 씨는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던 그는 지난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발급이 거부됐다. 이에 유 씨는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그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 씨에 대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병무청장의 요청 등에 의해 입국금지조치가 해제될 수 있었다”라며 “입국금지조치가 필요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유승준은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 당시나 그 이후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법적 쟁송도 제기하지 않다가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연령(38세)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라며 그에 대한 비자 신청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F-4 비자 신청으로 논란 확산

특히 유 씨가 신청한 비자가 F-4로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라는 사실에 부

정적 여론은 더 들끓고 있다. F-4 비자로는 한국 땅을 밟는 것을 넘어서 국내에서의 경제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 씨 측은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관광비자 발급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F-4 비자는 선거권을 제외하곤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장기간 머물며 음반 발매나 연예 활동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만 60세 이상의 동포,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국내의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특정 자격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이 취득할 수 있다.

유 씨는 올해 1월 새 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를 내며 국내 복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초 지난해 11월에 앨범을 내려 했으나 싸늘한 여론에 앨범 유통을 맡기로 한 회사가 이를 철회하면서 한차례 무산됐다. 이 곡에는 “제발 되돌리고 싶어 더 늦기전에” 등의 후회를 담은 가사도 담겨 있다.

한편, 일각에서 17년의 세월이 흐른 그에 대한 동정 여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에 대한 ‘여론길’은 싸늘하기만 하다. 법의 판단은 그를 2002년으로 되돌렸지만, 유 씨 스스로가 불러들인 국민적 불신은 과연 200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oul.co.kr

# ‘천재소년’은 왜 8년 지나도 박사 못 땀나

송유근, 제적 처분 소송서 패소  
法 “논문표절 논란에 책임 있어”  
UST “논문, 졸업 요건 못 갖춰”



송유근. /연합뉴스

“1997년생, 6세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이해하고 대학 수준의 미적분 문제를 풀었다.” “초등학교 6년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중고교를 검정고시로 졸업. 지능지수(IQ)는 187.” “8살이던 2005년에 최연소로 인하대학교에 입학.”

‘천재소년’ 송유근씨에 대한 얘기다. 하지만 그는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 학교측은 송씨를 제적 처분했다. 그는 과학기술연합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송유근은 지난 2009년 12세의 나이로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다. 그러나 송 씨가 영국의 한 저널에 발표했던 블랙홀 관련 논문이 2015년에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결국 송 씨의 논문은 이듬해 11월에 공식 철회됐다. 또 송 씨는 같은 해 설상가상으로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까지 겪었다.

결국 송 씨는 2009년 입학했던 UST로부터 지난해 9월 최장 재학 연한인 8

년 안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해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군에 입대했다. 이로써 송 씨가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군 복무를 마친 후 다시 다른 대학 학위 과정에 입학해야 한다.

이에 송 씨 측은 제적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 씨 측은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지도교수 해임으로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송 씨는 “UST 학칙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며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된 학칙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논문 표절 논란은 송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송 씨는 UST를 졸업이 아닌 ‘수료’로 마쳤다. 이

에 송 씨 부친은 “아들이 2015년 논문 표절 논란 이후 지도교수도 없이 블랙홀 연구를 지속해 영국의 저명한 학술지에 실렸는데도 불합격 처리된 것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UST 측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 한 편 게재가 졸업을 위한 자격요건은 맞지만 졸업을 위한 학위논문은 이와는 별개”라며 “송 씨의 논문이 졸업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그의 제적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 역시 큰 충격에 빠졌던 바 있다. 송 씨는 어린 나이지만 누구보다 빼어났고, 소신도 있었기 때문이다. 송 씨는 한 방송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있어서 초중고 12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 길지 않은 인간의 생애에서 조금 더 빨리 제가 원하는 공부와 연구를 하기 위해 이런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로움에 대해서도 말한 바 있다. 송 씨는 “실제로 어디에서든 다 겪어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대학에서도 형 누나들과 잘 놀았다. 어디에서도 나이 차이가 나든 간에 잘 어울리고 문제없이 지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손현경 기자



‘대한 독립만세! 100년 전 그날로...’

재외동포 및 국내 대학생들이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대형 태극기 현수막을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교육청 상반기 사업비 1.7조 조기집행

서울시교육청은 경기회복세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상반기 주요사업비 1조7498억원을 조기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조기집행 대상 사업(2조 5775억원)의 68.3%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별로는 공·사립 학교운영비 6555억원,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4944억원, 맞춤형복지비 616억원이 집행됐

다.

서울시교육청은 조기집행 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조기집행점검단을 구성, 매월 주간간부회의 시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관리해 왔다.

또 학교현장의 실행행렬 제고를 위해 학교운영비, 각종 목적사업비 등 학교회계전출금을 조기 교부해 상반기

집행을 적극 독려했고, 이월사업비 적기집행, 긴급입찰제도 적극 활용, 선금·기성금 지급 활성화 등 조기집행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기집행 목표액 초과 달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자 노력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신속 집행을 독려하고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

## 밀레니얼 세대 72% “집에서 즐긴다”

“제일 편하고 지출 줄일 수 있어 선호”

밀레니얼 세대 10명 중 7명은 스스로 ‘홈루텐스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루텐스족이란 ‘홈(Home)’과 ‘유희’, ‘놀이’를 뜻하는 ‘루텐스(Ludens)’를 합친 말로 자신의 주거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기는 이들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14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30대 밀레니얼 세대 38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2.3%는 스스로를 집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홈루텐스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런 답변은 성별로 여성(76.5%)이 남성(61.4%)보다 15.1%포인트 높았다.

이들이 홈루텐스족이 된 이유(복수 응답)로는 ‘집이 제일 편하기 때문’(79.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지출을 줄이고 싶기 때문’(38.1%),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이기 때문’(20.1%), ‘집에서는 내 취향을 오롯이 실현할 수 있기 때문’·‘오히려 집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각 13.1%) 등의 순이었다.

스스로를 홈루텐스족이라고 밝힌 이들이 평소 집에서 즐기는 활동(복수 응답)으로는 ‘대형TV나 빔프로젝트 등을 설치하고 홈영화를 즐긴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고, ‘배달앱이나 가정 간편식 등을 이용해 유명 식당 음식 즐기기’(43.2%) 등이었다. /한용수 기자

## 박두한 삼육보건대 총장 연임 성공

“직업교육 에이스대학 만들 것”

박두한 삼육보건대 총장(사진)이 연임에 성공했다. 박 총장은 삼육보건대를 ‘직업교육의 에이스(ACE)대학’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교법인 삼육학원(이사장 황춘광)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박두한 총장의 재신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2015년 부임 이후 4년 동안 ‘진심으로 교육하여 진심의 인재를 양성하는 진심대학’을 표방하며 삼육보건대 발전을 견인해 왔다.



박두한 삼육보건대 총장(사진)

박 총장은 두 번째 임기 출범을 앞두고 “2015년 부임 당시 비상(非常)의 시기에 대학을 책임지게 되어 비상(飛上)하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며 “융·복합 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 수요에 탄력적인 직업교육 혁신을 이뤄 우리나라 최고의 ACE대학으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 기자

## 동국대 영상대학원 후기 신·편입생 모집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19학년도 후기 특별전형 신(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5일까지 동국대 영상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2019학년도 2학기에 입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석사과정만 모집한다.

모집학과 및 전공은 문화콘텐츠학과(콘텐츠기획, 콘텐츠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학과(영화기획, 영화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 멀티미디어학과(콘텐츠공학, 콘텐츠디자인, 융합콘텐츠제작) 등이다. /한용수 기자